

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꿈 속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정말 알고 싶어요. 제 주변에는 다 이슬람 사람들 뿐이라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30 대 후반의 한 무슬림 부인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이 부인은 제가 섬기는 방과후 마을사역 현장에서 영어를 배우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 부인을 만나 그의 꿈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남편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남편은

사탄의 장난이라며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부인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분을 믿는 지 아느냐?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꿈에서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난 것, 그 분의 음성을 들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고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이 부인은 그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이 부인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좀 더 차근차근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꿈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분들의 기도 제목 중에 이 부인을 위한 기도제목 하나를 추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대홍수가 일어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부 지역 사람들 모습입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곳에서 비행기로 2 시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현장을 보면서 홍수 가운데 좌절하신 주님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영혼을 그들의 죄악의 홍수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진 속에서 한 아주머니가 넘어질 듯 하면서 손을 내밀어 잡아달라고 하는 호소가 당장은 홍수 때문이겠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애절한 모습같이 여겨집니다.



- 선교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 지를 확실히 깨달도록 돕고 인도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아이들의 아빠가 되게 해 주세요



파스타와 파투르 형제 가족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시티 마리아입니다. 저희와 같은 교회를 섬기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결연 사역 대상 가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형제의 아버지가 오래 전에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현재 기숙사방들을 청소하는 청소부로 일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 파스타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고, 동생은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 가정은 매일 새벽 4 시면 일어나서 5 시까지 온 가족 구성원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부터 시작해서 현재 요한일서 3 장까지 읽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내는 성경 퀴즈에 매일 성실하게 답을 달아주는 형제이기도 합니다. 아빠가 없지만, 올곧게 자라고 있는 파스타와 파투르 형제를 응원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장차 인도네시아에서, 아니 세계에서 주목받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을 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이 아이들을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키울 아빠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파스타의 가정을 특별히 돕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그동안 함께 한 사역자가 목회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심손과 리나 두 청년은 지난 5 년 동안 저희와 함께 방과후 마을 사역 현장을 섬긴 동역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 전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수마트라 니아스 섬의 한 교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방과후 마을 공부방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그들의 결혼식을 축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손과 리나 가정이 어디에 가든지 주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자들이 잘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1 명은 확보되었으나 1 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 연락처: +62-813-9488-8002, 010-2170-6267 카톡 ID: kalebpark / parksangjun222@gmail.com
- 후원은행 및 계좌 번호: 하나은행 990-090819-187 (문의 02-443-0883, GP 한국선교회 재정간사)

아이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의 다이소에서 사온 여러 종류의 스티커를 방과 후 마을 사역에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각자 알아서 붙여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이 아이들이 사는 동네는 도시 근교와 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배워야겠다는 간절한 마음 만큼은 남다른데. 그래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가서 영어와 사랑을 가르칩니다. 곧 다가올 성탄절에 이 아이들에게 정성 가득한 성탄 선물을 주면서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꾸준히 공부하러 나와 준 아이들에게 감사의 뜻과 함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제목

1. 감사하게도 쉬파를 위하여 호주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쉬파를 위한 장학금을 일부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쉬파에게는 학비와 생활비 등 많은 비용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쉬파에게 계속 사랑을 심음으로써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저희 둘째 아들 성진이가 내년 3월 7일에 서울 공덕동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예비 며느리는 수술을 받고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큰 아들 성은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람된 직장 생활을 다시 이어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이숙영 M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갑작스런 피부염으로 목주위와 얼굴에 붉은 기가 심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지 의사를 통해 약 처방을 받았으나 낫지 않아 기도부탁을 드립니다. 박상준 M의 척추협착증과 신경눌림으로 인한 하체 통증이 치료되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2025년 12월 중순,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박상준 이숙영 선교사 올림

- 네이버 밴드(인도네시아, 박상준 이숙영 M), 혹은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